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6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 에스겔 I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
9월 8일 ~ 11월 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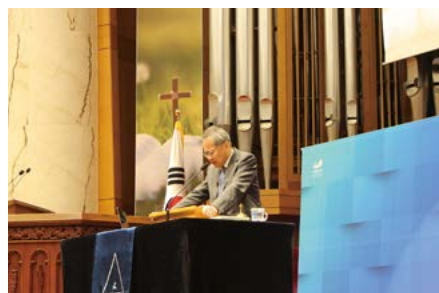
2026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에스겔 I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2026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에스겔 I>이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학기 주제는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20)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김정석 감독회장의 강의로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 5년째 되던 해(B.C 593)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바벨론에서 약 23년 동안 활동하며 유다와 이방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다. 에스겔서는 특히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한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다.

에스겔서 강의를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에스겔서를 통해 삶의 현장과 고난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가을 학기 등록은 8월 30일(주일)부터 9월 15일(화)까지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의는 일반과정과 온라인 통신과정이며, 일반과정은 본당과 각 지교회에서, 통신과정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직접 나와 들을 때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으며 은혜를 더한다. 또 믿음의 교제도 풍성히 이룰 수 있다. 이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수료 기준은 출석 11회 중 결석 4회 미만, 과제물 평균 70점 이상이다. 강의 시간 내 성경 암송 신청자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한 성도에게는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기념 사진이 제공된다.

‘온타임 성경 필사 에스겔’도 출간된다. 성경 필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읽고, 쓰며 강의를 통해 배운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타임 성경 필사서는 9월 6일부터 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는 각 선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속회 지도자 교육이 진행되어 속회에서

나눌 말씀을 배우게 된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성경을 사실, 의미, 적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배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이다. 또한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광림의 성도들은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번 학기에도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희 기자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5)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썰물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는 듯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로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세상과 다름이 없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신앙공동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공동체보다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 대하여 화를 내시거나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후 1:2)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Rollo May)의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궁허함, 고독감, 불안감’. 삶의 무의미성과 더불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목표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삶에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다시 시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름이 없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고후 1:2)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



고린도후서 1:3~7

3.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5.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며”(3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5절).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만큼은 없었던’하는 잊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소중

하게 쓰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걸어왔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다시금 해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오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실패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6~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함은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능히 감당할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즉 사명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좌절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게 소망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주제로 영적 회복 체험해



광림교회는 8월 13일(목)~15일(토)까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라’(벧후 3:18)는 주제로 2026년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울여름 유난히 뜨거웠던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은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심령의 회복을 체험했다. 여름수련회는 8월 13일 저녁예배로 시작해 14일, 15일 새벽예배와 저녁예배까지 5번의 집회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광림의 성도 모두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께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름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목사)는 오랜 세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명의 말씀을 매 시간 성도들에게 전했다. “우리 모두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난 세월에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오래되고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자”고 말했다.

성도들은 수련회 기간에 본당을 가득 채우며 공동 기도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과 한국교회와 광림의 제단이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 되기를, 안도옥개신교회의 재건, 가정과 일터를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준비 찬양으로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어준 유다지와, 트리니티 찬양단, 스테반부부 찬양팀과 함께 성도들은 손뼉을 치며 기쁨과 감사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나사렛성가대, 남성성가단, 미가엘성가대, 여선교회성가대, 갈릴리성가대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수련회 마지막 저녁예배에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정성을 다해 양육할 것을 다짐했고, 자녀들의 미래가 소망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구하며 서원예물을 드렸다.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결단과 기도로 은혜를 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소현수 기자

여선교회 ‘기프트 클래스 온’ 가을 강좌

숨은 달란트 발굴 위한 소그룹 맞춤형 강의로 진행

광림교회 여선교회 가을강좌

Gift 클래스 ON

내 안의 재능을 켜는 시간 ON
따뜻한 만남이 이어지는 시간 ON

수강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9월 6일(주일)

수강 일자
2026년 9월 8일(화) / 9월 9일(수) / 9월 15일(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세요

여선교회
총연합회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오는 9월 8일(화), 9일(수), 15일(화) 3일 동안 여선교회 회원 및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숨은 달란트 발굴을 위한 2026년 가을 강좌 ‘기프트 클래스 온’을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그동안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해 온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새롭게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헌신의 영역에 즐겁게 도전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기프트 클래스 온’은 첫째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여선교회총연합회의 후원과 전문 강사진의 순수한 재능 기부가 어우러져 한층 알찬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맞이한다. 수강료는 1인 1강좌당 1만원(재료비 별도 강좌 있음)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강좌는 대규모 특강 방식에서 벗어나 10명 내외의 내실 있는 ‘소그룹 맞춤형 강의’ 위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행 스페인어,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필라테스, 바이블 캘리그래피, 선물 포장, 베이비 마사지, 엄마표 교육 코칭, 바리스타, 꽃꽂이(생화/조화), 테이블 세팅, 아이 마음 읽기, 메이크업 등 총 12개의 다양한 전문 강좌가 펼쳐진다. 특히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강사진이 대거 참여해 강의의 질을 높였다.

수강 신청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폼 접수로 진행된다. 여선교회는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배려해 잔여 수강석이 있는 강좌에 한해 해당 선교부장을 통한 전화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여선교회는 지난 ‘선교 한마당’ 행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번 가을강좌를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어떤 강좌를 선택하더라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열 권사는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실지 기대가 크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발견된 회원들의 달란트가 새로운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열매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프트 클래스 온’이 어떤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지 새로운 방향도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백명순 기자

포토 뉴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설교
김정석 감독회장은 8월 16일(주일) 오후 7시, 명성교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중 말씀을 전했다.



홍콩감리교회 성도 교회 방문
8월 9일(주일) 3부 예배에 홍콩감리교회 성도들이 방문해 예배를 드렸다.



청장년부, 청년부 격려행사
청장년부에서 국내 교육선교와 해외선교로 수고하는 청년 후배들을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감독회장 동정



8/13~15	전교인 여름수련회
8/17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설교
8/18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단 간담회
8/23	동탄광림교회 3주년 감사예배 및 세례 예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국내선교위원회

마음 문 열고 하나 된 외국인제자훈련센터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함께 교제하며 연합의 기쁨 나눠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위원장 서명관 장로)는 8월 9일(주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여름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예배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를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한층 가까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린 후 한자리에 모여 점심 식사를 나누었고, 서로를 축복하고

마음을 나누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연합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물놀이 시간에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물에 흠뻑 젖은 채 활짝 웃으며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준 것이 뜻깊었습니다. 새신자로 카자흐스탄 및 에티오피아 가정을 비롯해 중국·몽골·일본에서 온 남서울대학교 유학생들이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요시나 후카 씨와 하시모토 사나 씨는 “아직 설교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경험과 한국 예배를 체험할 수 있어 기쁩습니다”라며 참석 소감을 전했습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이번 만남이 지속적인 교제와 신앙의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에는 ‘한가위 잔치’를 마련해 이번에 만난 분들을 다시 초대하고, 전도 카드를 통해 새로운 외국인 이웃에게도 초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함께 웃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던 만남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정기 권사(광림외국인제자센터)

사회사업위원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르신 섬김 행사



지난 8월 5일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르신 섬김 행사’를 실시했다. 가족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취지였는데, 여기에 동참해 준 한 가정(21교구, 한재준 집사, 홍주연 성도, 한유찬 학생)을 만나 보았다.

광림교회는 언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요?
한재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광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녔었고, 해외 생활 등을 하며 잠시 떠나 있었다가 2022년 귀국 후 다시 광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홍주연: 현대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채플 시간을 통해 광림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고, 귀국한 후 기도하면서 광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부서는?
홍주연: 의료선교회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5년에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피지 의료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다음달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멕시코 유카탄 의료선교에 가족과 함께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사랑부 여름수련회에서 이를 동안 자원봉사자로 섬겼는데,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섬김 봉사를 하고 느끼게 된 점은?
한재준: 친근하고 반갑게 봉사자들에게 인사하시는 분, 아파서 한동안 못오다 오랜만에 왔다고 하시는 분, 힘들어 하시면서도 감사의 표정을 보내는 분 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는 사탕 꾸러미에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는데, 그 성경구절을 보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하고 힘이 되며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홍주연: 이른 시간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했는데, 거의 3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 보이면서도 줄을 서서 물품을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 힘든 표정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시고, ‘아멘’이라고 답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유찬: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 보였으나,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나눠드렸는데, 모두 따뜻하고 감사한 표정과 말씀으로 받아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득섭 기자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세워가는 11교구 남성 속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1~22)

11교구 16지구 남성 속회의 시작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성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모아지면서 첫 속회 예배를 드렸고, 속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예배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속회는 조금씩 가족 같은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속도원들이 매주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각자의 삶에서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속도원뿐 아니라 배우자들도 성가대와 교회학교 등 교회

곳곳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이면 속도원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주 동안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과 자녀, 일터와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품습니다. 서로의 기쁨에는 함께 감사하고 어려움에는 중보기도로 힘을 보태면서 속회는 예배 공동체이자 삶을 나누는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온 특별한 기억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쉽지 않았던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잠비아 우물 파기 사업에도 속회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동참했습니다. 때로는 영화와 음악회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하며 예배 밖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받은 기도 응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습니다. 서로의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와 격려를 나눈 뒤 함께 송구영신예배로 향하는 일정은 이제 11교구 16지구 남성속회의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기마다 14·15지구와 남성 연합 속회로 모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지구를 넘어 더 넓은 믿음의 공동체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교구 16지구 남성 속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삶으로 이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눌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고 싶은 11교구 남성속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따뜻한 교제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새로운 속도원들을 기다립니다.

고진석 권사(11교구)



청년부

2026년 베트남, 몽골 해외 교육선교

현지 교회와 함께 이어 간 복음의 여정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유대·사마리아·땅끝으로 이어지는 4대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땅끝 선교는 매년 여름과 겨울 5~6개국에 청년들을 파송하는 해외 단기선교와 '해외 100교회 건축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 총 64개 교회를 건축했으며, 매년 한 곳 이상의 해외 교회 건축을 이어 왔다. 2025년에는 해외 교회 건축을 대신해 안디옥개신교회 건축을 위해 2,500만 원을 헌금했다.

세 달의 기도,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현재 청년선교국은 17개국의 선교사 및 현지 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선교지가 정해지면 청년들은 평일과 주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현지의 문화와 사역 환경을 배우며 준비한다. 모든 해외 단기선교는 자비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

거나 용돈을 아껴 선교비를 마련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준비해 간다.

사역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보다 '현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두고 있다. 현지 교회의 요청과 필요에 맞추어 사역을 구성하고, 단기선교가 끝난 뒤에도 현지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운영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한 지역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또 다른 지역과 교회를 섬길 가능성을 모색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 가는 중이다.

또한,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해외단기선교는 낯선 나라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광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광림미션센터, 현지 교회가 오랫동안 이어 온 사역에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힘을 보태는 선교를 지향한다. 청년들은 현

지 교회와 가까이 호흡하며 어린이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에 나누며 현지에서 시작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있다.

현지 교회 곁에서, 아낌없이 흘러보낸 은혜
이번 여름에도 이러한 선교의 방향은 베트남과 몽골의 현장에서 이어졌다. 베트남팀은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의 김기민 목사님과 협력해 호치민과 빈푹성의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겼다.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전공과 재능을 살린 일곱 개의 체험 클래스를 진행했고, 섭린머이교회에서는 약 120명의 소수 민족 어린이들과 만나 교제했다. 이어 여름성경학교와 '금요 홀리 나이트'를 통해 찬양과 말씀, 무언극과 공과로 복음을 전하며 현지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 갔다. 무엇보다 선교팀의 방문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선교센터와 현지 교회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베트남에서 다음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현지 교회의 사역에 힘을 보탤다면, 몽골에서는 이미 이어져 온 선교의 열매를 다시 확인하며 그 다음 걸음을 함께했다. 몽골팀은 광림교회가 파송한 유심원 선교사와 미가 선교사가 섬기는 몽골 광림미션센터를 거점으로 울란바토르와 어잉게렐, 날라이호에서 사역했다.

특히 3년 전 광림의 청년들이 기도하며 밟았던 날라이호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찾아 당

시의 기도와 섬김이 현지의 예배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과 기도로 축복했으며, 현지 청년들과는 교제와 신앙 나눔을 이어 갔다. 이러한 만남은 전도 축제로 확장되어, 몽골 청년들이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한국팀이 함께 준비하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한국팀이 앞에 서기보다 선교사와 현지교회, 몽골 청년들이 앞으로 복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동행한 선교였다.

지속되는 선교, 이어지는 복음

올해 여름 해외 단기선교의 일정은 끝났지만, 현지에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과 몽골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은 선교사와 광림미션센터, 현지 교회가 오랫동안 이어 온 사역에 청년들이 함께 힘을 보탤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여정은 22명의 청년뿐 아니라 3개월 동안의 기도와 준비, 자비량으로 마련한 선교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긴 손길과 성도들의 중보가 함께 만들어 낸 선교였다.

청년들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떠난 선교의 자리였지만 현지의 어린이와 청년, 성도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광림교회 청년부를 통해 세워진 64개의 교회가 각 지역에서 복음의 터전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이번 선교를 통해 시작된 만남과 섬김도 현지 교회와 광림미션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광림북교회 봉헌 8주년 감사예배 및 세례 예식

경기 북부 지역 섬김과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

광림북교회는 지난 8월 9일(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광림북교회와 본당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 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경기 북부 지역인 의정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지역을 섬겨 온 광림북교회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녘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과 하려는 사명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다. 감사예배에서 스마일찬양단의 준비 찬양과 이안수 장로의 대표 기도에도 이어 광림북교회 연합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잊지 못할 사람’(삼하 19:31~3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의정부 민락동에 자리를 잡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바르실래를 잊지 않았고,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그를 선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전

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광림북교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선교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광림북교회 이름으로 선교지에 전해질 예정이다. 이어 김정석 감독회장은 유아 1명과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세례예식을 진행했다.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는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이 담긴 편지와 꽃다발을 김정석 감독회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림북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7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성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예배실, 지하 1층에는 성가대 연습실과 소예배실, 1층은 로비와 행정실, 2층은 목양실과 식당, 카페,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유병권 기자



동탄광림교회 3주년 감사예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젊은 교회



동탄광림교회는 지난 8월 23일(주일) 저녁 7시 30분, 동탄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3주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히엘찬양단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최병두 집사의 대표 기도에도 이어 지난 3년 동안 동탄광림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성장 과정을 담은 3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 이방인의 믿음’(마 8:5~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전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광림교회 성도들도 이웃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 집례로 뜻

깊은 세례 및 입교 예식이 거행됐다. 유아세례 4명과 성인 세례 7명, 입교 2명 등 총 13명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특히 세례자 가운데 정영미 성도는 항암치료 후 머리가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아 모자를 쓴 채 예배에 참석했지만, 세례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모자를 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고백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황영재 목사는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은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사랑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3주년

봉헌 감사헌금을 ‘안디옥개신교회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리기로 성도들과 함께 결단했다”고 전했다.

동탄광림교회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 7월 23일 봉헌된 이후, 동탄과 경기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젊은 교회로 성장해 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정순 기자



목회현장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교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단체사진이 아니라 예배실과 교육관 등을 꼼꼼히 촬영합니다. 3박 4일의 사역을 마친 뒤 처음 모습대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지역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울여름 광림교회 청년들은 강원·충청·경상·전

라·경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내교육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지의 목사님들은 한결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참 귀합니다. 이들을 보니 한국교회의 미래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두 달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교를 신청하고, 주말과 여름휴가, 자신의 재정을 드려 준비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은 휴가를 선교 일정에 맞췄고, 다음달 결혼을 앞둔 청년도 기쁨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즌 중이라 참여가 어려웠던 야구 업체의 한 청년도 마침 폭염으로 경기 일정이 잠시 쉬게 되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아이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훈

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이어받아 오늘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며 광림교회의 선교 유산이 다음 세대 안에 살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한 지방회에는 30개 교회 중 20개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었고, 나머지 10개 교회의 어린이를 합쳐도 60명 정도였습니다. 청소년부의 상황은 더 어려웠으며, 함께할 또래 없이 교회를 섬기는 한두 명의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해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일일수련회, 흠어진 청년들을 위한 감리교 청년 연합수련회의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지역 교회의 식당에서 섬겨 오신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이번에는 청년들이 ‘어른성경학교’를 열어 그분들을 섬겨야 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당장

모두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기도하며 때와 방법을 분별해 하나씩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더 넓은 추수의 현장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려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시며, 추수하는 주인께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37-38)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청년을 일꾼으로 불러 보내셔서, 보여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선교국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여 지역 교회와 지방회를 중심으로 교회학교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주송 목사(청년부)

기도로 세워지는 유아부, 믿음은 어릴 때부터 자랍니다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 백경자 장로



백경자 장로는 3년째 광림교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4~5세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다. 오랫동안 교구에서 헌신했던 백 장로에게 유아부는 새로운 자리였지만, 아이들과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올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기도가 아이와 교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임을 경험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하는 유아부’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유아교육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3년 전 장로로 피택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유아부였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다

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깨달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웠지만 지나고 보니 신앙교육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유아부 아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가정의 신앙과 정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주고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신앙에서 어떤 시기인가요?
4~5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품을 벗어나 스스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

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막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오래 남기 때문인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평생 믿음을 지탱하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였어요. 1부와 2부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 제목이었는데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됐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교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처음 온 친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 되는 유아부가 됐으면 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 아이가 가족을 교회로 이끈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따라 유아부에 왔는데 다른 교회에도 가본 뒤

광림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고, 이후 부모님도 함께 교회를 옮겨 지금은 3대가 광림교회에 정착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세심하게 돌본 시간이 한 가정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아부는 말만으로는 아이들과 온전히 소통하기 어려운 만큼 교사들의 관심과 사랑, 인내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령의 선생님들이 바쁜 중에도 예배와 교육을 준비하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됐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정과 소통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 배운 예배와 말씀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때 믿음도 더욱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와 아이들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 교육도 강화해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배우고 나누며 유아부의 내실을 다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려서 만난 하나님과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2-2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아모리 연합군은 모두 도주하였고, 아모리 다섯 왕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서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을 찾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곧 발견되었다. 여호수아는 동굴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고 병사들로 그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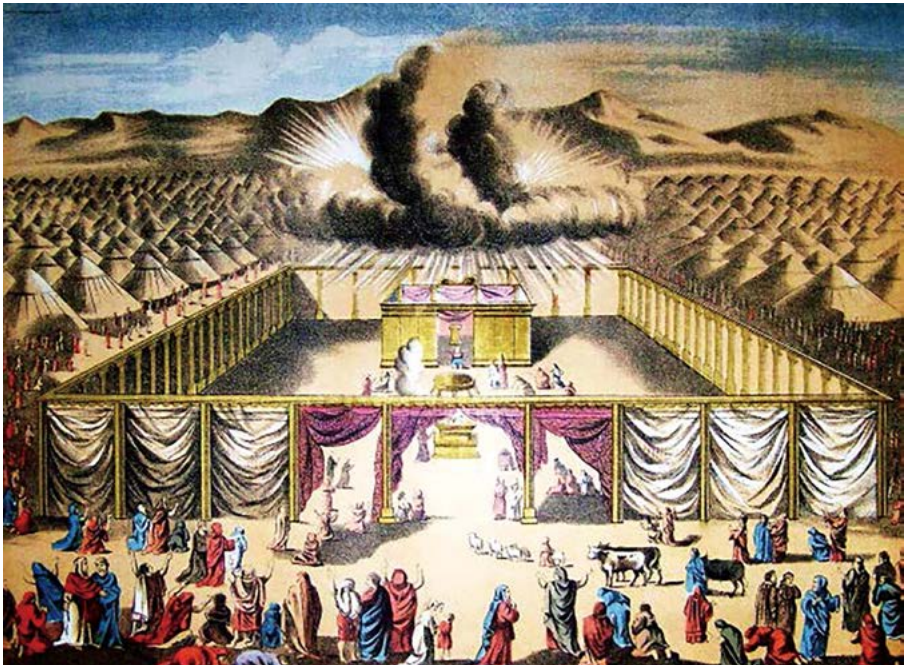
을 지키게 하였다. 동굴은 감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적의 군대를 우선 추격한 후에 왕들을 처치하기로 했다. 그사이 연합군은 다시 힘을 규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곧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밤이 되어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

사가 될 판이었다. 다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태양은 기브온 상공을 떠나지 않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태양이 12시간이나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힘입은 이스라엘군은 아모리 연합군을 맹공격하여 전멸시켰다.

▲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태양_ 여호수아의 기도로 하나님은 태양을 열두 시간 동안 아얄론 골짜기의 하늘 위에 머무르게 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승리하는 장면이다.

존 마틴 작품

그리고 정복한 영토를 그동안 함께 고생한 모든 지파에 균등하게 나눠 용기와 인내를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마침내 태양이 지자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나안 모든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다시 연합군의 다섯 왕이 갇혀 있는 동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과 야르못 왕을 끌어내 본보기로 죽였다. 그러자 가나안의 서른 명 남짓한 왕들은 곧바로 항복했고, 여호수아가 제시한 요구에 모두 따랐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은 완성되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40년간 시나이 사막에서 보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선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는 세겜과 길갈 사이에 있는 실로에 성전을 짓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신적인 중심으로 삼았다.

◀ 실로의 성전_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실로에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든 성궤를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제 유대 민족은 더 이상 이집트의 빈민가에 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양치기가 되었다. 모든 유대인은 각각 조금씩 땅을 받았고, 각 지파는 성으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된 이상을 가진 강력한 국가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이상은 바로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 자유 독립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국가의 이름으로 정했다.

광림 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